

제주 청년 평화·통일 콘텐츠 공모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윤리교육전공 3학년 강현석·박하민·홍예진씨가 최근 제주시 아스타호텔에서 열린 제1회 2021 제주지역 청년 평화·통일 콘텐츠 공모전에서 '제주 청년, 평화·통일을 만들다'는 주제 콘텐츠로 대상을 수상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통일미래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청년들과 멘토가 함께 어우러져 제주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다양한 통일·평화 관련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제주의 숨은 장소를 찾고 이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함양시키기 위한 취지다.



수상자들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주의 장소를 통일과 접목시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통일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남원읍 한남리 특화거리에 '색' 입힌다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가 '한남리 문화·역사 벽화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문화·역사 특화마을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7일 남원읍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1년 주민참여예산에 최종 선정되며, 앞서 2019년 실시한 '한남리 스토리가 있는 문화 유적길 조성사업'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과 탐방객의 큰 호응을 얻으며 주민참여예산 평가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가운데, 한남리사무소 인근 옹벽에 아트라일벽화를 조성해 풍성한 마을의 문화·역사 스토리를 제공하고 있다.

벽화에는 제주 최초 열녀 정씨의 절개를 기리는 고려 정씨열녀비와 사계절 늘 푸른 녹차밭인 한남다원,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웰니스 관광지 자연·숲



치유 분야'에 선정된 머제왓길길 등 한남리를 대표하는 문화·역사적 명승지와 유적들이 여럿 담겨 있다.

한남리 소재 고려정씨열녀비와 분향당이 각각 2019~20년 차례로 제주특별자치도 향토 유형유산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한남리 분향당당이 향토 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사회복지법인 선도원 사진작품 3점 기증

사회복지법인 선도원(부설) 벨원(원장 임주리)은 최근 우리동네 아바추어 장애인 사진작가 만들기 전시를 기념해 전시됐던 작품 중 제주 자연을 담고 있는 사진 작품 3개를 한림읍사무소에 기증했다. 한림읍사무소는 사진 작품을 전시해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자연의 풍경 사진을 느끼며 소홀히 지나칠 수 있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도원 임주리 원장은 "이번 기증은 장애인 사진작가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라동 어린이 등굣길 안전캠페인

제주시 아라동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위원장 김정심)는 지난 6일 위원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라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일대에서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에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보행시 휴대전화 안 보기, 올바른 보행과 차량 서행 안전운전 등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등굣길에서 지켜야할 규칙들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또한 보행자 우선 '안전속도 5030' 참여 홍보 및 횡단



보도 주변 폐기물 수거 환경정비와 음료수 페트병 등 안 버리고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펼쳤다.

송악도서관 과학시간에 토론하기 운영



송악도서관(관장 김수범)은 지난 3일 대정중에서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 고취 및 창의 융합적 사고 향상을 위한 '과학시간에 토론하기'를 개강했다. 과학 교과와 연계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과학 토론 논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문제해결을 위해 탐구·토론해 발표하는 수업이다.

동녘도서관 청소년 명랑독서 교실 개강



동녘도서관(관장 양민식)은 지난 6일 김녕중학교에서 1학년년을 대상으로 2021년 청소년 명랑독서 교실을 개강했다. 청소년 명랑독서 교실은 주제별 선정 도서를 활용한 책 읽기 및 독후활동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 18일까지 총 4회 운영된다.

한라게시판

치매예방주간학습지 198회 정답

- 1번 정답: 울림픽, 폭염경, 행열치열, 쇠등, 이사회적거리두기
2번 정답: 1) x (11분 35초), 2) x (123건), 3) 50명, 4) 5월 31일
3번 정답: 204호

화촉 피로연 안내
신랑 문상돈 [비디채널 제주점 대표]
부 (故)문우철 (前 중등교장)
모 김효순
신부 김현주
부 김선제
모 구명순
피로연 일시: 2021년 9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피로연 장소: 제주 마리나호텔 8층
*연락처: 신랑 010-5877-5478, 신랑모친 010-8661-7662
*예식일시: 2021년 9월 5일 (일) 오후 1시
*예식장소: 서울 M컨벤션

화촉 신랑 진성환 (홍릉시모던2군부)
부 진영진 (변호사/공증인)
모 강승미
신부 김수지 (패션사업)
부 김학신 (前창업인 근무)
모 지하숙 (前충남지역 교사)
*연락처: 신랑부친 010-6633-1908, 신랑모친 010-3463-7702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가족 친척 일부만 참석하는 작은 결혼식을 거행할 예정이오니 양해 바랍니다. (화환은 절대 사양 합니다.)

무교
*양석하(前 제주특별자치도 서율본부장)씨 별세, 허순하씨 남편상, 양치영·진영씨 부친상, 김명임씨 시부상, 김남훈씨 빙부상 > 일포=9월 7일 (화) > 발인일시 및 장소=9월 8일 (수) 오전 6시 부민장례식장 10빈소 > 장지=양지공원->용강 선영 > 연락처=허순하(010-6877-7202), 양치영(010-6860-7202), 양진영(010-7124-7202), 김명임(010-7644-0104), 김남훈(010-2692-8012)
*모집
*2021 가을학기 탐나는 5060인생 학교 '탐나는 삶을 위해, 우리는

인생학교에 간다! 수강생 모집
*교육기간=2021년 9월 15일~11월 24일, 매주 수·목요일 09:30~12:30 > 모집대상=50~64세(1957~1971년생) 20명 (선착순) > 모집기간=2021년 9월 1일~12월 18:00까지 > 신청방법=제주평생교육다모아 홈페이지(www.damoa.jeju.kr) > 주요내용=인생설계(새로운 삶 준비, 대인관계), 건강관리, 재무설계, 사회참여(경력설계, 사회공헌 활동 등) > 문의=(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755-9874~5
*화촉관 무료입니다
문의 750-2828 / FAX 752-7448 732-5552 / FAX 732-5559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뇌독목 문제풀이 영상이 YouTube에 업로드 됩니다.
YouTube에서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를 검색하세요.

“우리말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면...”



모티브→동기, 모토→좌우명
박물관서 86개 단어·예문 순화

“쓰레기 없이 살기 '제로 웨이스트' '제로 웨이스트'는 모든 제품과 포장 및 자재를 태우지 않고, 토지·해양·공기로 배출하지 않으며, 재사용 및 회수를 통해 모든 자원을 보존하는 행위를 말한다. '첼린지'가 붙은 '제로 웨이스트 첼린지'는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발생을 줄인 사례와 쓰레기를 줄

이는 자신만의 방법을 공유하는 운동(캠페인)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독려하고 있는 운동인 만큼 제주의 한 도립 박물관 안내문에도 '제로 웨이스트'라는 말이 그대로 쓰였다. 이를 '쓰레기 없애기 운동'으로 순화할 수 있다.

한라일보와 제주대학교 국어문학회 공동 기획인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 다섯 번째 순서에선 '사상·정신' 관련 의미를 담은 단어와 예문을 다룬다. 이번 기획은 문화체육관광부·(사)국어문화원연합회의 공개 모집 과제인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 중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국어문화원은 도내 박물관·미술관 등 21곳에서 사상·정신 관련 의미영역으로 묶이는 단어, 예문 86개를 추려냈다. 이후 검수를 거쳐 쉬운 우리말, 올바른 공공언어

로 순화했다.
도내 박물관에서 발견한 사상·정신 관련 단어와 그것을 순화한 공공언어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노하우→비결 >리더십→지도력 >모티브→동기 >모토→좌우명 >슬럼프→부진·침체 >부르주아→자본가 >비전→가치관 >세리머니→축하 의식 >에티켓→예절·예의 >아이러니→모순 >위트→재치 >캐페인→운동 >클래식→고전 >테마→주제 >트렌드→유행 >판타지→환상 >패닉→공황 >간파하다→알아차리다 >근간→바탕 >남용→마구 쓰다·함부로 쓰다 >덕망→명예 >부상→덧없음 >반열→등급 >선동→부추김 >진일보→발전 >추산→어림잡다 >표출→나타냄·드러냄 >확립하다→세우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돌문화공원 기증사진·공모전 입상작

제주 돌문화를 대표하는 유산 중 하나인 동자석을 담은 사진이 제주돌문화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다. 돌문화공원 관리소가 오백장군갤러리 기획전으로 7일부터 열고 있는 사진가 이창훈의 기증사진전이다.

이번 기증전에는 이창훈 사진가가 제주동자석의 미학적 아름다움과 예술적 가치를 알리고 사라져가는 동자석 보호를 위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촬영한 사진들이 나왔다. 전시 작품은 30점에 이른다.

기증사진전과 함께 '돌문화공원 전국 사진 공모전 수상작' 26점도 전시하고 있다. 수상작은 안진연의 '햇말이' (사진, 금상), 임성복의 '장독대 여인' (은



상), 부장보의 '합창대' (은상), 신준철의 '겨울 초가' (동상), 이순우의 '은하수' (동상), 최진양의 '돌문화공원 가을 전경' (동상) 등이다.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진다.

제주농협 사회공헌 책자 '나눔과 봉사'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승표)는 최근 3년간 도내 곳곳에서 펼쳤던 농협의 사회공헌활동 발자취를 엮은 '나눔과 봉사'를 펴냈다.

일곱번째 사례집으로 총 121쪽의 화보집 형태로 펴낸 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협의 다양한 지원 활동과 노력, 2006년부터 25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기부운동인 '제주농협 행복나눔운동',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루지 못했던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제주농협 희망 Dream 프로젝트'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담고 있다.

농협은 이같은 사회공헌활동을 인정받아 2019 제주메세나 대상, 2020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인증기관 선정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 올해는 전국 농협 중 최초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기부프로그램인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기도 했다.

건입동-제주파파일 복지자원 협약



제주시 건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태식, 한재일)는 지난 3일 건입동 동민의 방에서 제주파파일(대표 전경희)과 월 1회 저소득 아동 20명에게 특별식(멘보샤 무스비, 데리야끼 덮밥등)으로 만든 도시락 지원 복지자원 협약을 체결했다.

용강동 청년회 쌀 나눔행사



제주시 용강동 청년회(회장 고동균)는 7일 봉개동 주민센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50포대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쌀은 용강동 청년회가 마을길 정비사업 및 기타 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